

동아시아 순환론에 대한 재해석

— 엘리아데의 ‘원형과 반복’을 근거로 —

허재수*

목차

I. 서론

II. 엘리아데 ‘원형과 반복’의 순환론

III. 동아시아 순환론

IV. 서구 순환론과 동아시아 순환론의 차이

V. 결론

논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고대 순환론이 과거 지향적 사고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독특한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이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첫째, 엘리아데가 『영원회귀의 신화』에서 제시한 ‘원형과 반복’을 이용하여 고찰한 결과, 고대 동아시아 순환론이 근대에 직선적 시간관으로 발전하지 못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인들은 고대 히브리 민족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자 창조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로 추동해 나갈 힘이 약했으며, ‘자연’을 ‘원형’으로 삼으면서 자연 주기와의 동조성이 강해 순환론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둘째, 고대 동아시아 순환론이 과거를 중시하는 보수적 사고임에도 기원후 18C 이전까지 천 수백 년간 동아시아가 서구보다 선진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대 서구인들은 ‘원형’을 체험하는 순환의 과정에서 ‘과거 시간’을 폐기했지만, 동아시아인들은 순환의 과정에서 ‘과거’를 축적하여 후대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DB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주업이 정주 농경인 동아시아는 자연 주기에 동기된 지식정보를 축적하는 데에 서구보다 유리했으며, 이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

*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 박사과정(hcojs55@naver.com)

■ 논문투고일: 2024.11.23 / 심사개시일: 2024.11.26 / 게재확정일: 2024.11.30.

여 기원후 서구를 능가하는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과거를 소중히 하고 순환론을 선택한 이유는 과거 지식과 정보를 재활용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과거지향의 소극적 사고로 평가하는 것은 서구 중심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순환론, 원형과 반복, 엘리아데, 동아시아, 지식·정보 DB.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동아시아 고대 순환론이 과거 지향적 사고가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의 독특한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구축 과정이었음을 논하는 것이다. 이 논의의 근거로는 미르치아 엘리아데(1907~1986, Mircea Eliade)가 『영원회귀의 신화』¹⁾에서 제시한 ‘원형과 반복’을 주로 이용한다.

동아시아에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딜레마가 하나 있다. 그것은 고대 동아시아의 순환론적 시간관은 과거 지향의 소극적 사상이며, 서양의 직선적 시간관은 미래 지향의 적극적 사고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기 어렵고 후자의 사고방식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글을 접할 때마다 ‘동아시아가 음양론 기반의 순환론적 사유에 매몰되어 있다가, 18C 근대 창출에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순환론은 진정한 진화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만 복고에 불과할 뿐이고, 역사의 변천은 천도(天道)의 순환에 불과하다.²⁾

순환론에서의 변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변화가 아닐 수 있다.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변화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목·화·토·금·수의 계기적 변화가 일단락 되면 다시 목·화·토·금·수의 변화가 시작되고, 탄생·성장·수확·저장의 과정이 끝나

1) 미르치아 엘리아데, 『영원회귀의 신화』, 심재중 역, 이학사, 2003.

2) 이택후, 『중국고대사상사론』, 정병석 역, 한길사, 2005, 352쪽.

면 다시 탄생·성장·수확·저장의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의 체계는 불변한다. 이에 근거하여 음양오행설에서 변화의 관념을 부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곳에 발전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³⁾

직선적 시간관은 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고, 원형적 시간관은 동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다. ... 직선적 시간관은 역사는 끝없이 발전해간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낳는다. ... 인류의 점진적 발전과 진보에 대한 낙관이 진보적 역사관의 특징이며, 서구사상의 근간을 형성한다. 원형적 시간관은 역사가 큰 틀에서 반복된다는 ‘순환적 역사관’을 낳는다. 순환적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발전과 진보를 지속하지 않는다. 대신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 이것이 동양적 역사관의 특징이다.⁴⁾

이 주장들은 동아시아의 순환론적 역사관은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발전, 진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고·중세에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보다 선진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동·서 문화 비교 분야의 많은 선행 연구는 18C 이전의 천 수백 년간 중국이 서구보다 선진 기술 문명국이었음을 논증하고 있다.⁵⁾ 그렇다면 순환론이 진보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맞는다고 하기 어렵다. 동아시아 순환론이 과거 지향의 ‘단순 반복적 순환’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엘리아데의 ‘원형과 반복’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3) 양계초 외, 『음양오행설의 연구』, 김홍경 편역, 신지서원, 1993, 7쪽.

4) 채사장,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한빛비즈, 2014, 22~24쪽.

5) 조셉 니담, 이석호 외 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 I』, 을유문화사, 1988, 305쪽, “중국의 기술적 발명은 서력 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서서히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그 상황은 후세에 역방향으로 향해 흘러간 기술적 흐름과 맞먹었던 것이다.” 라고 하며, 이 기간에 중국의 선진 기술이 유럽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이언 모리스, 최파일 역,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글항아리, 2013, 465, 603쪽, 스탠퍼드 역사학과 교수인 이언 모리스는 “동양이 541년부터 1773년까지 1200년 이상 서양보다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았다.”라고 하며 구체적 사회 발전지수를 제시해 설명한다.; 주경지, 전홍석 역,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청계출판사, 2003. 23~31, 62~63쪽 참조.

엘리아데는 반역사적이며 허구적 상상, 비이성적 이야기로 비판받던 고대 신화를⁶⁾ 종교학, 신화학의 위치로 끌어올린 루마니아 출신 종교사학자이다. 그는 ‘원형과 반복’, ‘시간의 갱신’, 그리고 ‘시간의 폐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고대 신화가 허구적 상상이 아니라 고대 인간의 보편적 심성으로부터 나온 신뢰할 수 있는 서사임을 설득력 있게 논하고 있다. 그는 먼저 세계 각지의 여러 사례를 통해 신화시대의 인간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순환론적 삶을 살았다고 정리한 다음,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순환적 시간관이 절대자 창조주에 대한 믿음에 의해 어떻게 점차 직선적 시간관으로 바뀌어나가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 과정은 역사시대의 전개에 따라 인지가 발전하면서 순환적 관념이 점차 약해지고 이성 중심의 계몽과 근대로 발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엘리아데의 이론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음양오행론에 기반한 순환론적 사유도 보편성을 가진 것이며, 그 보편적 강점으로부터 기원후 천 수백 년간 서구를 능가하는 동아시아의 변영이 가능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다음 두 가지 연구물음을 가지고 동아시아 순환론을 재해석한다. 연구물음 ① : 고대 동아시아 순환론은 왜 서구처럼 직선적 시간관으로 발전하지 못했는가? 연구물음 ② : 기원후 천 수백 년간 동아시아의 기술 문명은 서구보다 앞섰는데, 이 시기의 기반 사상이던 순환론은 어떤 핵심 가치와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

그동안 순환론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이 있으나 本稿의 주제와 같은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엘리아데의 ‘원형과 반복’을 활용하여 서양 및 동아시아의 종교, 신화, 전설 등을 재해석하거나, 이 개념을 디자인 예술 분야에 접목하는 연구는 많이 있다.⁷⁾

6) 임형권, 「성스러운 역사와 구속사: 엘리아데의 유대-기독교 서사 해석」, 『문화와 종교』, 제23권, 한국문화과종교학회, 2018, 74쪽 참조. “신화를 언어의 질병으로 진단한 막스 뮐러(Max Müller)와 달리 엘리아데에게 신화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매개체이다. 사실, 뮐러 이전에도 신화를 폄하하는 경향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존재했다. … 이러한 대립은 합리적 이성을 세계 이해의 척도로 삼은 근대 계몽주의 사상에서 절정에 달했다.”

II. 엘리아데의 ‘원형과 반복’의 순환론

1. 엘리아데의 ‘원형과 반복’

엘리아데는 고대인의 행위가 자율성을 갖지 않는 것이며 어떤 원초적인 힘에 구속되어 행위하는 것으로 본다. 이 원초적인 힘이 곧 신성하고 성스러운 ‘원형’에 해당하며, 이 ‘원형’의 궁극적 모습은 세계 각지의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신과 천지창조’라 할 수 있다. 고대인들은 신년 의례나 여러 가지 제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 ‘원형’과 접촉하여 그 재생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고대인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관찰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고유하게 인간적인 행위이든 외부 세계의 사물이든, 그 어떤 것도 자율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 영양 섭취는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니라 일종의 성찬식의 되풀이이다. 혼례와 집단적인 오르지 orgie(통음난무)도 신화적인 원형들의 반향이다.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는 것은 태초에(‘옛날 옛적에’, 시초부터 ab origine) 신들, 조상들, 영웅들에 의해 그 행위

-
- 7) 김종석, 「고대 중국인의 聖顯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3. 논자는 ‘원형과 반복’을 이용하여 고대 중국에도 聖顯이 있음을 설명한다.; 임형권, 「성스러운 역사와 구속사: 엘리아데의 유대-기독교 서사 해석」, 『문학과 종교』 23,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8. 논자는 엘리아데의 ‘총체적 해석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유대-기독교 전통을 선택하여, 신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역사주의를 비판하고, 엘리아데가 유대-기독교 경전을 어떻게 재신문화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胥志强, 「論神話現象學的時間分析」, 『文藝研究』 2022年第12期, 中國藝術研究院. 쉬즈창은 ‘원형과 반복’을 바탕으로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민코프스키의 현상학적 전통에서 시간은 場(field)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에 착안, 신화의 기능은 독특한 방식으로 시간의 장을 재구성하여 “운명-기원-의식”의 통일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陳群志, 「重新衡定線性時間觀與循環時間觀之爭」, 『社會科學』 2018年第7期, 上海社會科學院. 켈른즈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순환적 시간관을, 기독교인들이 선형적 시간관을 갖고 있다고 하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논한다.

들이 축성되었기 때문이다. ... ‘원시인’ 혹은 고대의 인간에게는 의식적인 행동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그 이전에 이미 인간이 아닌 어떤 타자에 의해서 행해지고 경험되지 않은 행위란 없다. 그가 행하는 것은 이미 행해진 적이 있는 것이다. 그의 삶은 타자들에 의해 창시된 행위들의 끊임없는 반복이다.⁸⁾

‘그의 삶은 타자들에 의해 창시된 행위들의 끊임없는 반복이다.’라는 것은 신화시대의 인간들은 자연의 힘에 비해 지식과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나 조상에 의해 검증된 행위규칙과 활동 방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은 개인의 자유가 거의 없고 자율성이 매우 낮은 시대를 살았던 고대 인류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엘리아데는 이런 고대인들을 ‘자율성 없는 타율적 존재’로 보거나 힘이 약해 ‘초월적 힘에 구속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자율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특성으로서 공동체의 규범을 지키며, 신성하고 원초적인 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반복적으로 그 신성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더욱 자세히 고찰하여 이 같은 특성 속에는 오늘날 무한 경쟁의 직선적 시간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 자신의 ‘원형과 반복’론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엘리아데는 ‘타율’이나 ‘구속’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데, 이것은 고대 신화에 대한 그의 애정으로부터 나온 중요한 전략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는데, 먼저 ‘영토’의 경우, 개발되지 않은 땅은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에 해당하며, 인간이 행하는 개간과 경작은 곧 ‘천지창조’를 반복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사막지방이나 경작되지 않은 땅, 미지의 세계 등은 <혼돈>과 동일시된다. 그것들은 무차별적이고 형태가 없는 <창조> 이전의 양태에 속하며, 그 땅을 경작하기 시작할 때 <창조>행위는 상징적으로 반복되는 제의다. 개간되지 않

8) 엘리아데, 앞의 책, 14~16쪽.

은 지역은 ‘우주의 질서에 편입’된 다음에야 사람이 거주한다. 즉 경작되지 않은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것은 천지창조 행위와 맞먹는다.⁹⁾

다음으로 서구에서 근대 직전까지 명맥을 유지해 온 ‘중심의 상징체계’에 관한 여러 가지 신화, 전설, 민담을 예시한다. ‘세계’의 중심에는 ‘성스러운 산’이 있고, 모든 사원이나 궁전, 성스러운 도시는 ‘성스러운 산’이며 ‘중심’이라 믿고, 그곳이 바로 ‘하늘’과 ‘땅’, ‘지하 세계’가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믿는 것이다. 이처럼 중심과 연결된 상징인 사원, 성산, 도시에 살거나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중심의 원형에 연결되고 그 성스러움을 체험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¹⁰⁾

엘리아데는 “모든 창조는 가장 두드러진 우주 창조행위인 ‘세계 창조’를 반복한다.”¹¹⁾라고 하며, 태초 이래 모든 인류의 창조행위는 그것의 가장 원형에 해당하는 태초의 ‘천지창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고대의 도시 건축이나 건축과정에 행해지는 의례를 통해 그 축성된 공간을 ‘세계의 중심’과 일치시키고, 모든 의례의 시간을 ‘시초’의 신화적인 시간과 일치시킨다.”¹²⁾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행해진 다양한 세속 활동에도 하나의 원형, 즉 신성한 모델이 존재하고 이 모델은 태초의 천지창조에 잇닿아 있으며, 따라서 고대인들의 모든 의례와 세속 활동도 ‘원형의 반복’이라고 주장한다¹³⁾.

2. ‘원형과 반복’의 순환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저자는 ‘고대인들의 존재론’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9) 엘리아데, 앞의 책, 20~21쪽.

10) 엘리아데, 앞의 책, 23~28쪽 참조.

11) 엘리아데, 앞의 책, 29쪽.

12) 엘리아데, 앞의 책, 32쪽.

13) 이에 대한 풍부한 사례들은 엘리아데, 앞의 책, 32~46쪽 참조.

첫째, 어떤 사물이나 행위는 하나의 원형을 모방하거나 반복하고 있는 한에
서만 실재적이다. 실재는 오로지 반복이나 참여를 통해서만 획득된다. ... 둘째,
범례적인 행위들의 반복과 원형의 모방에 의한 시간의 폐기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¹⁴⁾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인 ‘시간의 폐기’는 ‘원형 반복적 삶을 살아가는
고대인들의 특성으로부터 저자가 도출해 낸 개념으로서, 이것을 고리로
하여 반복과 원형 및 순환론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설명한다. ‘원형’을 반
복 체험하는 고대인들이 ‘시간을 폐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행위(혹은 사물)가 범례적인 행위의 반복을 통하여 그리고 오직 그 반
복을 통해서만 어떤 실재성을 획득함에 따라, 세속적인 시간의 폐기, 지속과
‘역사’의 암묵적인 폐기가 일어난다.¹⁵⁾

이 내용은 고대인들에게 왜 ‘시간의 폐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삶에서 ‘실재성’은 원형의 반복 체험을 통해서만
확보됨으로 ‘원형의 반복적 체험’ 즉 원형과의 연결, 일체감이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 조건을 지킨다는 것은 원형을 떠나 세속적 삶을
살아간 과거의 시간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간의 폐기’, ‘역사의 암묵적 폐기’로 표현한 것이다. 저자는 이것
을 ‘시간의 갱신(Regeneration of Time)’이라 보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신
년 의례를 소개하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대인들의 이러한 시간
관념은 현대인의 직진하는 시간과 달리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있는 可逆
的인 시간관념, 즉 순환론적 시간관념’을¹⁶⁾ 발생시킨다. 고대인들의 이
러한 ‘순환 관념’은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달의 변화 모양을 통

14) 엘리아데, 앞의 책, 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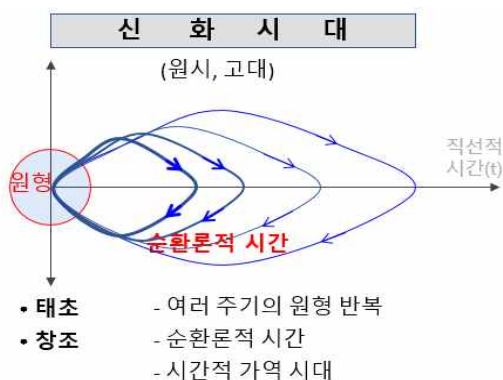
15) 엘리아데, 앞의 책, 48쪽.

16) ‘순환론적 시간’과 ‘순환적 시간관념’ 용어 구분 : 현실의 물리세계에서는 순
환, 가역하는 시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다는
의미로 ‘循環論的 시간’이라 칭한다.

해, 또 그로부터 파생된 달에 관한 여러 가지 신화와 신앙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달의 변화하는 모습들(나타나고, 커지고, 이울고, 사라지고, 사흘 동안의 어두운 밤 다음에 다시 나타나는)은 순환 관념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고대의 목시록과 인류 창생설에서 유사한 관념들을 발견할 수 있다. ... 실제로 한 인류의 “탄생”과 성장, 노쇠(“마모”)와 소멸은 달의 순환과 동일시 된다.¹⁷⁾

이와 같이 달의 모양이 끊임없이 동일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순환을 보면서, 원시인들도 시간에 순환적인 방향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점차 시간의 비가역성을 무효화시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매 순간 그 처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수용하면 신화시대에는 동양뿐 아니라 서양 사회도 순환적 시간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화시대의 순환론적 시간의 개념을 이미지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신화시대에는 ‘원형’을 ‘반복’하며 순환론적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림 1> 신화시대의 순환론적 시간의 이미지

17) 엘리야데, 앞의 책, 93~94쪽.

3. 히브리 민족의 믿음에 의한 직선적 시간관의 탄생

신화시대의 순환적 시간관이 서구에서 고대와 중세를 거치며 기독교 사상에 의해 조금씩 변화되어 근대에 직선적 시간관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설명한다. 엘리아데는 다음의 두 가지 논리를 이용하여 절대자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유대 기독교 사상이 직선적 시간관을 발생시킨 것으로 주장한다.

1) ‘고통’의 의미와 절대자 신앙의 필요성

고대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죄의 결과이거나 신의 저주로 인한 것이거나, 자연의 순환원리 상 재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자식이 아프고, 열병에 걸리고, 사냥 운이 없어서 매번 허탕을 치거나 하면, 원시인은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악마적이거나 주술적인 힘 때문에 생겨나며 그 힘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사제나 주술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주적인 재앙이 닥쳤을 경우에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도 주술사를 찾아가 주술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 청하거나 사제에게 찾아가 신의 호의를 빌어달라고 청한다. ...

주술사나 사제가 관여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그동안 거의 잊고 지내 왔던 지고한 존재를 다시 생각해내고 그에게 희생 제물을 바쳐서 기도한다. 티에라 델 푸 에고(Tierra del Fuego)의 셀크만(Selkman) 유목민들은 “높은 곳에 계신 그대, 내 아이를 빼앗아가지 마소서. 아직 너무 어렵니다.”라고 빈다. 소위 원시 민족들의 종교 의식에서 천상의 지고한 존재들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간주된다는 것이다.¹⁸⁾

고대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일차적으로 주술사나 사제를 찾아가 해결 방안을 찾는다. 그 방법이 실패하면 그들은 그동안 잊고 지내던

18) 엘리아데, 앞의 책, 100~101쪽.

천상의 최고신을 생각해내고 희생 제물을 바치며 기도한다는 것이다. 즉 지고한 존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히브리 민족이 그 어느 민족보다 강력한 유일신이자 절대적 권능을 가진 창조신 야훼를 숭배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히브리 족은 고대 이집트 이주 생활과 수천 Km의 민족 대이동, BC 6세기 남유다 멸망 후 팔레스타인을 떠나 나라 없는 이방인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엘리아데의 논지에 따르면 히브리 민족은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이 큰 만큼 인간적인 주술사나 제사장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점점 더 강하고 절대적 능력을 가진 지고신에게 고난의 대책을 간구해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 민족이 가장 강력한 절대 신을 숭배하고 그를 창조주로 하는 천지창조 신화를 갖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2) 직선적 시간관의 탄생

이렇게 가장 강력한 신을 ‘원형’으로 가지고 순환론적 시간관 속에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에게 직선적 시간관이 나타나는 원리를 설명한다.

히브리인들은 역사상의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이를 선택받은 민족이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에 진노한 야훼의 징벌이라고 생각하였다. ...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적인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때마다, 히브리인들은 야훼에게서 떨어져 이웃 민족들의 신인 바알(Baal)과 아스다룻(Ashtarte)에게 다가갔다.

오직 역사적 재앙만이 그들의 시선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들의 진정한 신에게로 향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 ... 재난을 당했을 때에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참된 신에게 되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원시인들의 절박한 행위와 닮은 데가 있다.¹⁹⁾

엘리아데는 이런 상황에서 인격신의 의지가 선지자를 통해 미래를 예

19) 엘리아데, 앞의 책, 107~108쪽.

고하는 예언 형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사상이 고대 순환론적 시간에서 직선적 시간관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즉 구약시대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예언이 히브리 민족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믿음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예언자들이 최초로 역사에서 기존의 순환론을 넘어서는 ‘단선적 시간’²⁰⁾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태초의 강력한 절대자는 히브리 민족을 순환론으로 구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언자를 통해 현실의 가장 큰 고난을 헤치고 미래로 나아갈 힘도 부여해 준 것이다.

유대 민족의 신은 원형적인 행위들을 창조한 동방의 신과는 달리, 끊임없이 역사에 개입하고 사건들(침략, 포위 공격, 전투 등)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인격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은 신을 마주한 인간의 ‘상황들’이 되고, 또한 바로 그런 점에서 그때까지 그 어떤 것도 그 사건들에 부여해 줄 수 없었던 종교적인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의 현현이라는 역사의 의미를 히브리인들이 최초로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짐작할 수 있는 바대로, 그 관념이 기독교에 의해 계승 확장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²¹⁾

여기서 언급된 ‘예언이 실현’되거나 ‘신이 현현’한 대표적 사건이 소위 메시아 재림인데, 이를 믿는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과거에 예언했던 사건이 현재 발생하였으므로 현재는 분명 그 과거의 미래인 것이다. 이제 시간은 순환하여 과거로 회귀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직선적 시간관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20) 번역본에서 ‘단선적 시간’으로 번역하였으나, 本稿에서는 이를 오늘날의 일반적인 표현인 ‘직선적 시간’으로 표현한다. 엘리아데, 앞의 책 109쪽.; 저자의 영문판 저서에는 ‘one way time’으로 표현돼 있음. Mircea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71. p.104. 참조.

21) 엘리아데, 앞의 책, 109쪽.

III. 동아시아 순환론

동아시아 전통사상 이론에 나타나는 순환론의 내용을 살펴본다. 대표적으로 음양론, 오행론, 음양오행론, 『주역』의 순환론적 사유를 요약 소개한다.

1. 음양의 기원과 순환론적 특성

음양의 기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주를²²⁾ 참고 바라며, 서복관이 정리한 ‘陰陽’의 기원을 간단히 소개한다.

‘陰陽’이란 두 글자는 ‘음양(陰陽)’ 으로부터 파생되었다. 비록 ‘음양’이라는 글자가 쓰여지면서 ‘음양(陰陽)’이라는 글자는 없어졌지만 이후 음양 관념과 관련이 있는 모든 변화는 햇빛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음양(陰陽)’이라는 글자의 原意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²³⁾

이 견해를 수용하면 동아시아의 음양론은 곧 햇빛(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음양론은 햇빛의 자연적인 변화 상태를 이론화한 것이며, 중국 고대 각 시대의 최고 지식인들이 진리탐구의 방법론으로서 이 ‘음양’을 선택해, 세부적인 사상이론을 개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루의 시간 변화, 일 년의 시간 변화에 따른 햇빛의 변화 양태

22) 음양 관념의 기원은 주역기원설, 성기 기원설, 자연취상설 등 여러 설이 있으나, 문헌적 자료가 뒷받침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은 태양 빛의 변화로부터 기원했다는 자연취상설이다. 시기적으로 자연취상설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인간사회의 발달에 따라 성기 기원설, 그리고 기록 문화가 등장하면서 주역 기원설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세 내용은 謝松齡, 「음양오행학설사」, 김홍경(편역), 『陰陽五行說의 연구』, 신지서원, 1993, 475~477쪽 참조. 徐復觀, 「陰陽五行說과 관련 문헌연구」, 김홍경(편역), 『陰陽五行說의 연구』, 신지서원, 1993, 57쪽 참조.

23) 徐復觀, 위의 논문, 1993, 58쪽.

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동소이한 보편적 자연현상이다. 따라서 음양론 자체는 근원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철학사상을 ‘햇빛의 변화’로부터 도출해 낸 이유는 그들이 정주 농경민으로서 주업인 농업의 생산성이 햇빛의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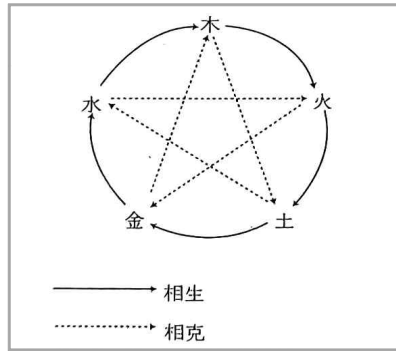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음양의 기원에서 순환의 특성이 어떻게 내재하는지 살펴보자. 어느 한 지점의 햇빛의 양이나 온도는 1년, 1일을 주기로 대략 파동 형태로 변한다. 햇빛의 자연적인 변화 상태를 이론화한 것이 음양론이고 이러한 주기적인 파동 변화를 고대에는 원형 순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²⁵⁾ 음양론은 태생적으로 순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음양의 순환성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 1년 사계절이다. 음양에 만물을 배속할 때 사계절은 음양의 확장형인 四象에 배속되고 이것이 전국시대에 음양과 오행이 결합할 때 음양은 곧 四時로 대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시의 순환성은 그대로 음양의 순환성으로 전이되고, 음양의 순환론적 성격은 더욱 강화된 것이다.

2. 오행의 순환론적 특성

오행의 순환론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2>와 같은 오행 상생 상극도에는 “목 → 화 → 토 → 금 → 수 → 목 ……”의 상생회로와, “목 → 토 → 수 → 화 → 금 → 목 ……”의 상극회로가 내재해 무한 피드백 순환이 일어난다.

24) 리처드 니스벳(저), 『생각의 지도』, 최인철(역), 김영사, 2004, 189-190쪽 참조. “동서양 사고 방식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고대 그리스의 서로 다른 생태환경이다. 두 문화의 상이한 생태환경은 서로 다른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체제를 초래했다. … 중국의 자연환경은 대체로 평탄한 농지, 낮은 산들, 항해가 가능한 강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경에 적합하였고,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유리하였다.”

25) 주기적인 파동 변화를 고대 당시에 원형 순환으로 이해하는 원리는 本稿 IV장에서 설명함.



<그림 2> 오행상생상극도 例²⁶⁾

상생상극의 두 피드백 순환 회로가 작동하는 오행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수학의 미분방정식으로 모델링하고 해석하여 오행론이 일종의 안정된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것을 논증한 선행연구도 있다.²⁷⁾ 하나의 시스템(System, 系, 체계)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으로서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증한 연구로 순환론의 긍정적 측면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한편 전국시대 말, 제나라 음양가인 추연은 오행 상극법칙을 이용해 五德終始說이라는 역사발전법칙을 제안한다. 추연이 말하는 오덕이란 바로 토덕·목덕·금덕·화덕·수덕이며, 역사상의 각 왕조는 각기 자신에게 대응되고 부합하는 하나의 덕이 있다고 한다. 그 덕이 왕조의 운명을 결정하며 오덕은 항상 전이하고 운동하며 멈추지 않는데, 오덕의 오행상승²⁸⁾ 법칙에 따라 역사상 왕조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이다.²⁹⁾ 추연의 오덕종시설에 대해 역사의 진보를 부정하는 순환론이라고 비판³⁰⁾

26) 孟景春・周仲瑛, 『中醫學 概論』, 김종석 외 역, 유성출판사, 1998. 33쪽.

27) 소광섭, 「五行的 數理物理學的 모형」, 『과학과 철학』, 통나무, 1994, 35~56쪽.

28) ‘오행상극’과 같은 의미이며, ‘오행상극’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용어이다.

29) 白奚, 『직하학 연구』, 이임찬 역, 소나무, 2013. 501~502쪽 참조.

30) 박동인, 「董仲舒 儒術獨尊의 정치철학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할 수 있지만, BC 3C 당시에 오행 상극법칙을 ‘1년’이라는 주기가 아닌 수백, 수천 년의 장기적 주기에 적용한 아이디어는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행론에는 태생적으로 순환론이 내재해 있다.

3. 음양오행론의 순환론적 특성

음양오행론의 결합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殷代에서 발생한 오행 관념이 발전하여 전국 중기 『관자』에서 음양과 만나 일차적으로 오행상생의 결합이 진행되고, 전국 후기에 추연에 의해 이차적으로 오행상극의 종시설이 제안된다. 이를 前漢代 동중서가 학문적으로 종합해 음양오행론으로 완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¹⁾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음양론과 오행론이 각각 순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결합하여 탄생한 음양오행론은 더욱 강한 순환론적 성질을 갖게 된다. 김홍경은 음양오행론의 ‘순환론’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순환론에서의 변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변화가 아닐 수 있다.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변화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목·화·토·금·수의 계기적 변화가 일 단락되면 다시 목·화·토·금·수의 변화가 시작되고, 탄생·성장·수확·저장의 과정이 끝나면 다시 탄생·성장·수확·저장의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다.³²⁾

오행의 순환 변화를 ‘같은 내용의 동일한 반복’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

2010, 78쪽. : “‘水德의 수한이 끝나면 土德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歷史循環論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연의 오행상생설은 철저하게 토·목·금·화·수라는 오덕의 전이를 반복하는 순환론적역사관이다. 따라서 역사의 진보적인 측면을 간과한 허점을 지니는 것이다.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인데, 추연처럼 한정된 순환적인 틀 속에 가두어두게 되면 역사의 생성과 발전 및 진보, 그리고 더 나은 문화와 더 완전하게 도덕이 구현된 이상 사회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31) 허재수, 「음양오행론의 시공간 복합성 고찰 및 도식화」,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32쪽 참조.

32) 양계초 외, 『음양오행설의 연구』, 김홍경 편역, 신지서원, 1993, 7쪽.

실 이 반복은 새로운 평형점(안정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순환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반복이 아니다. 물론 순환론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면 체계의 안정한 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체계 자체를 혁신하는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³³⁾나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4. 『주역』의 순환론적 특성

『주역』은 음양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이므로 앞서 설명한 음양의 순환적 성질이 『주역』에도 그대로 내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계사전」에서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여 『주역』이 말하려고 하는 우주변화의 본질적 이치를 음과 양으로 정리하고 있다. 『장자』의 「천하」편에서는 또 “주역은 음양을 말한다”(易以道陰陽)라고 하여,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이 사물의 대립과 통일이라는 운동·변화·발전에 관한 철학원리를 담고 있는 바로 그 핵심임을 말하고 있다.³⁴⁾

『역경』의 총론으로서 그 창작 원리를 설명하는 「계사전」은 『주역』의 핵심 개념과 근본 이치를 설명하는 논술인데, 여기에서 『주역』이 음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역』에는 순환론적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未濟卦라 할 수 있다. 『주역』 64괘의 마지막 괘인 미제의 괘명은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음’을 상징한다. 마지막 괘를 이렇게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일련의 변화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33) 토머스 S. 쿤이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구조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과학이 기존의 정상 과학을 대체하고 다시 정상과학으로 자리잡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로 설명함. 토머스 S. 쿤, 『과학혁명의 구조』, 김명자·홍성욱 역, 까치, 1999. 342~343쪽 참조.

34) 정병석(역주), 『주역』 하권, 을유문화사, 2011. 729쪽.

마지막에 있는 두 괘인 기제既濟와 미제未濟에 대한 해석이다. 기제既濟는 완성의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 괘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지 않고 미제未濟卦 즉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다. 「서괘」에서는 이것을 ‘사물은 다할 수 없으므로 미제未濟로 받아서 마치는 것(物不可窮也 故受之以未濟終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결론적으로 『역전』에서는 사물이 영원히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처해 있으며, 대립면의 변화와 전화에는 다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 결국 『역전』의 영허盈虛·소장消長에 관한 논술은 시종 순환론을 벗어나지 못하였다.³⁵⁾

미제괘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주백곤은 『주역』 「역전」의 사유가 순환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떤 변화가 끝나지 않고 반복된다는 점에서 순환론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IV. 서구 순환론과 동아시아 순환론의 차이

『영원회귀의 신화』에서 저자는 유럽, 중동, 러시아, 인도 지역의 많은 신화, 전설, 민담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사례는 매우 적다. 사례가 적다고 해서 저자가 주장한 이론의 보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원형’이라는 일반적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하나님이 ‘원형’이 될 수 있고,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이에 상당하는 대상을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앞에서 서구의 순환론을 가능케 한 결정적 힘이 ‘원형’이기 때문에 동서 순환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형’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영원회귀의 신화』에서 저자는 ‘원형’에 대해 직접 정의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원형’의 일반적 의미는 고대인이 따라야 할 ‘모범적 규칙이나 규정, 신성한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서구의 궁극적 ‘원형’은 세계를 창조한 최고 신인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³⁶⁾ 먼저 동·서

35) 주백곤, 『역학철학사』 I권, 김학권 외 역, 소명출판, 2012. 위의 책, 219~220쪽.

순환론의 차이점을 탐구하기 위해 서구의 원형인 ‘하나님’에 해당하는 고대 동아시아의 ‘원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각 원형의 ‘내용’과 ‘과거 시간’의 취급 방식을 고찰하면 동·서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것을 실마리로 하여 동아시아에서 직선적 시간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와 동아시아 순환론의 고유한 강점을 찾을 수 있다.

1. 기독교의 ‘창조신’과 동아시아의 ‘자연’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서구에서 역사를 추동하여 직선적 시간관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태초에 우주를 창조한 무소불위의 절대자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 힘은 물리적 힘이 아닌 정신적 힘이지만 그 무한한 힘에 의해 피조물인 인간의 정신세계 내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게 된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원형’에 의지해 예언을 믿은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미래로 추동해 나갈 생각과 사상이 다른 민족보다 먼저 나오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고·중세 동아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추동력이 나오기 어렵고 따라서 직선적 시간관이 발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중국에도 반고의 창조신화, 『회남자』 「천문훈」의 천지개벽, 여와의 인간 창조 신화³⁷⁾ 등이 있으나 이는 서구의 창조신화와는 크게 다르며, 무엇보다 절대적 힘을 가진 창조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대표적 개벽 신화의 주인공 반고는 이미 존재하는 혼돈의 우주 자연 속에서 태어난 존재로 묘사된다.

36) 엘리야데, 앞의 책, 29쪽에서, “모든 창조는 가장 두드러진 우주 창조 행위인 ‘세계 창조’를 반복한다.” 라고 한 설명과, 본 고 Ⅲ장의 설명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절대적 존재’를 참조하면 서구의 궁극적 ‘원형’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

37) 『회남자』의 천지개벽은, 유안 편찬, 『회남자』(상), 이준영 해역, 자유문고, 2015, 125~126쪽 참조. ; ‘반고의 전설’과 여와의 인간 창조 신화는 위엔커(袁珂), 『중국의 고대신화』, 문예출판사, 정석원 역, 2012, 41~43쪽, 45~46쪽 각각 참조.

천지가 아직 분리되지 않았을 무렵, 우주의 형상은 거대한 계란과 같이 암흑과 혼돈의 도가니였다. 우리의 조상 반고는 이 거대한 계란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 속에서 성장하였는데 언제나 잠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하기를 1만 8천 년,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난 그는 눈을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 이렇게 하여 원래 암흑과 혼돈의 도가니였던 천지는 반고가 휘두른 도끼에 의해 나누어졌다.³⁸⁾

반고는 스스로 존재하는 서구의 절대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존재이며, 이후 반고가 행한 창조의 내용도 이미 존재하는 자연을 改變한 ‘변화 수준의 재창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아데는 동아시아의 창조 신에 대해 ‘원형적인 행위들을 창조한 동방의 신’³⁹⁾이라 하며 서구의 원초적 ‘창조’와 구분한 바 있다. 즉 서구에서 세계의 출발은 절대 신에 의한 ‘천지창조’라 할 수 있지만, 동방의 그것은 ‘원형적 행위의 시작’일뿐이라는 것이다. 『회남자』 「천문훈」의 ‘개벽’ 역시 하늘과 땅이 열리면서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설명할 뿐 창조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하늘과 땅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빙빙(馮馮: 성대함)하고 익익(翼翼: 성대함)하며 동동(洞洞: 성실함)하고 축축(전일함)했으므로 태소(昭: 크게 밝다)라고 했다. 도道는 행하고 허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행하고 허한 것은 우주를 생성했다. 우주는 기氣를 탄생시켰다. 기는 안착해서 편안함이 있었다. 맑은 양陽은 티끌이나 먼지처럼 떠올라서 하늘이 되었고, 거둬서 막은 것은 엉겨서 땅이 되었다. … 하늘과 땅은 정精을 합해서 음과 양을 만들었다. 음과 양이 정을 하나로 해서 사계절을 만들었다. 사계절은 정을 분산시켜서 만물을 만들었다.⁴⁰⁾

그렇다면 서구의 ‘절대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동아시아의 ‘원형’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먼저 殷代の 帝나 上帝를 검토할 수 있으나⁴¹⁾, 이

38) 위엔커(袁珂), 위의 책, 41~42쪽.

39) 엘리아데, 앞의 책, 109쪽.

40) 유안 편찬, 『회남자』(상), 이준영 해역, 자유문고, 2015, 125~126쪽.

41) 미조구치 유조 외 엮음, 『중국사상문화사전』, 김석근·김용천·박규태 역, 책과 함께, 2011, 25쪽 참조 : 중국에서도 은殷 대代에는 제帝 또는 상제上帝라는 최고신(至上神)이 존재했고 그 최고신이 기후·제양·농작물의 풍흉 같은 자연

상제는 殷周 교체기에 천명의 형태로 지상에 하강하였기 때문에 서구 고·중세 기독교의 하나님과 비교되기 어렵다. 공자 유가에서의 천명 역시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되어⁴²⁾ 한대에 이르러 천인합일 사상⁴³⁾으로 발전하면서 서양의 절대자와 비교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도가의 ‘道’나 ‘自然’을 검토할 수 있다. 노자는 유가의 仁義禮智를 인위적이라 비판하고 최고 원리로 무위자연의 ‘道’를 내세운다.

‘자연’은 중국철학의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 작위함이 없는 道의 작용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본래는 ‘저절로 그러하다’는 의미였지만 도의 작용이 내재적 자기 원인으로 말미암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자연현상 및 자연물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 『노자 老子』 25장에서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한 것이 자연에 대한 최초의 철학적 의미부여였다. 왕필은 “자연은 무칭(無稱)의 것이며 궁극의 사(辭)이다.”라고 하여 자연을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그것이 바로 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혔다. … 결국, 도가사상 속에서 심화된 개념이지만, 이러한 사고는 중국철학의 전반에 걸쳐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게 되었다.⁴⁴⁾

인용문에서 ‘자연’을 가리켜 ‘중국철학의 전반에 걸쳐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 하였으니, ‘자연’을 동아시아 철학에서 ‘최초의 존재자’ 위치에 둘 수 있다고 본다. 우주와 이 세계를 창조한 제1 원인자

계와 전쟁·제사관리의 임명과 파면 같은 인간계의 모든 현상을 주재한다고 믿었다. 당시 샤먼의 일종인 정인真人이나 은殷 왕王은 거북점(龜)을 이용해 상제의 의지를 물어 재앙의 시기와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아내거나 갖가지 주술 행위를 펼쳐서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 했다.

- 42) 천명이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한 대표적 표현은 중용 제1장 참조.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장응철 역해 『중도의 길 성인의 길』, 동남풍, 2009, 11쪽.
- 43) 천인합일은 동중서의 『春秋繁露』 「官制象天」「爲人者天」「人副天數」「同類相動」편 참조. 蘇輿, 『역주 춘추번로의증』, 허호구 외 역, 소명출판, 2016. 297~299, 425~426, 498~499, 506쪽.
- 44) 유교사전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 박영사, 2004, 1298쪽.

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연’을 ‘하나님’과 等置하기는 어렵지만,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최초의 존재자로서 ‘원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관념주의 철학 전통의 서구에서는 당연히 비물질인 절대자 하나님이 최초의 존재자이지만, 경험주의 철학 전통의 동아시아에서는 물질인 ‘자연’이 최초의 존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이 동·서 ‘원형’의 근본적 차이이며, 이로부터 동·서 순환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 번째, 히브리인들이 큰 고난을 당하면 지고신에게 돌아가 간구할 때, 동아시아인들은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의 원리’로부터 배우고 답을 찾는다.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이 ‘자연’의 변화 규칙과 원리를 파악해 그에 순응하는 것이 생활의 기술이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한 것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서구의 순환이 인격신의 분노나 의지, 변덕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불규칙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동아시아의 순환은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 규칙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기적 규칙성이 높다는 이 사실이 ‘순환’의 이유, 즉 동아시아가 순환론을 선택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의 환경 변화에 규칙성이 높을수록 그 규칙성을 발견해 다음 주기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규칙성만 파악하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쉽고 적응했을 때 효율이나 가성비가 높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물음 ①, “고대 동아시아 순환론은 왜 서구의 순환론처럼 직선적 시간관으로 발전하지 못했는가?”에 답하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BC 4000년경에 시작된 황하 농업혁명 이후,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이 지속적으로 발달, 확대되어 정주 농경이 주업으로 정착되면서, 농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자연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농업 생산성 향상은 곧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동아시아인들은 ‘자연’의 순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 ‘자연’을 경외하고 ‘자연의 변화 규칙’을 조기에 파악하여 활용해야만 했다. 이 영향으로 사계 등 자연의 주기적 변화에 철저히 동조하는 것이 삶과 생존의 조건이 되면서 동아시아는 순환론적 시간관으로부터 탈피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2. '시간의 폐기'와 '시간의 축적'

앞에서 '시간의 폐기'를 설명하며 엘리아데는 서구의 고대인들이 원형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지나간 세속의 시간'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의 '시간'이란, 순환론적 시간관에서 흘러간 '과거 시간'을 뜻한다. 그래서 엘리아데가 말한 '시간의 폐기'는 곧 '과거의 폐기'이며, 구체적으로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 세속화된 의식, 관념, 사유방식 등을 버리고 '원형'의 재체험을 통해 정신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엘리아데의 주장에 따르면 고대 히브리족은 순환의 과정에서 강력한 원형을 주기적으로 체험하면서 지나온 과거 시간을 '폐기'한다.

이에 비해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흘러간 과거 시간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조상, 성인, 영웅 등의 전통과 경험적 지식을 축적한다. 환언하면 과거 시간을 '축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생존 조건인 농경 정주의 생활환경이 정확한 자연 주기에 맞춰 반복되므로, 대부분의 과거 지식은 다음 해나 미래에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구 사회보다 과거 경험지식의 재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조상숭배, 성인 존숭의 사상이 발달한 것이다. 내가 만약 어느 한 지역에서 평생 농사지으며 살아가고 내 후손도 이곳에서 농사짓고 살아갈 예정이라면, 나는 매년 반복하는 농사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잘 정리해 후손에게 철저히 전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물론 서구의 농민, 유목민, 상공업자들도 대를 이어 가업을 계승하는 경우 자신의 경험지식을 대대로 전수하고, 나름의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지만, 고대 중국에서 축적한 경험 지식·정보는 그 규모와 성질에 있어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서구와 차원이 다르다. 첫째, 대제국인 중국에서 농업이라는 단일 산업 분야에서 발생된 同種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하여 빅 데이터로서의 요건과 강점을 서구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확보할 수 있고, 둘째, 강력한 통일 제국이 농업을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관리함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검증, 저장, 축적하는 수준이

분열된 서구 지역보다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셋째, 하나의 지식을 제국 전체에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 효과가 크다. 이런 조건 때문에 중국은 ‘과거 정보’의 재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서구인들의 주업은 농업, 이동 유목 및 상업으로 복잡적이며, 다양한 민족이 다수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 주기의 동조성이 낮고 발생하는 지식·정보 형식(Format)의 통일성이 낮다. 따라서 同種의 같은 용량의 빅 데이터(Big Data, 이하 BD)를 확보하는데에 중국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 중국은 대륙이 하나의 통일 국가이기 때문에 도량형, 정책, 법률 등을 제국 전역에 통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과거 데이터(지식·정보)의 성질과 그에 부여하는 가치”에 있어 동·서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또 정보의 저장·축적의 측면에서, 秦·漢 시기의 문자통일, 종이의 발명과 인쇄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그 이전 수백,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 지식이 대거 成書된다. 漢代에서 고대적 의미로 일종의 과거 지식·정보 BD를 보유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백성들이 이전 시대보다 과거 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를 동아시아 고대 ‘지식·정보 BD’라 칭하고, 다음에 동아시아 고대 순환론과 지식·정보 BD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1) 정주 농경과 동아시아 순환론

동·서 문화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된 이유로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지리 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다. 동·서 문화 차이에 대해 논증한 예일대 심리학 교수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도 동·서 문화가 차이나는 근본 원인을 지리환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자연환경은 대체로 평탄한 농지, 낮은 산들, 항해가 가능한 강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경에 적합하였고,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유리하였다. 농경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화목한 생활이었다. 특히 쌀농사의 경우에는 공

동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 그러나 그리스의 자연환경은 그와 대조적이었다. 그리스는 해안까지 연결되는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농업보다는 사냥, 수렵, 목축, 그리고 무역(정확히는 해적)에 적합했다. 이런 일들은 농업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협동을 덜 필요로 한다.⁴⁵⁾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이 동아시아 문화의 특성을 ‘정주 농정’으로, 서양 문화의 특성을 ‘이동 유목’으로 설명했으며, 평유란(馮友蘭)은 중국 고대 농민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그들이 정주 생활자라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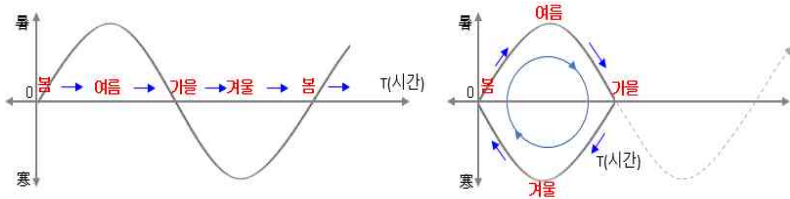
농부들은 이동할 수 없는 대지 위에서 살아야 하고, 사대부인 지주도 마찬가지로 지어야 한다. 그들은 특수한 재능이나 특별한 행운을 갖지 못하면 자기 부모나 조부모가 살던 그 땅에서 살아야 하며, 자기 자녀 역시 계속 그곳에 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은 경제적 이유로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⁴⁶⁾

중국 고대 정주민의 이런 모습은 거의 평생 거주 공간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으므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가 제약된 모습이지만, 상고대 수렵 채취나 이동 유목의 주거 불안정을 벗어나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도록 전통을 축적하며 안정된 정주 생활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 그들은 매년 비슷한 과정으로 되풀이되는 농사를 지으며,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벼농사의 특성으로 인해 계절의 변화에 철저히 종속된 생활을 하므로, 시간의 흐름이 직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지해 있는 나를 중심으로 원형 순환하는 시간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를 개념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⁴⁷⁾

45)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189~1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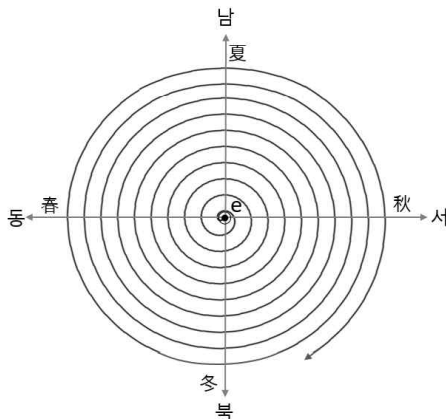
46) 평유란, 정인재 역, 『간명한 중국철학사』, 형설출판사, 2007. 47쪽.

47) <그림 3>은 허재수, 「음양오행론의 시공간 복합성 고찰 및 도식화」,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23.102쪽 참조하여 일부 수정.



<그림 3> 사계절의 시간이 직진하는 개념과 순환하는 개념도

즉 실제 사계절의 시간은 <그림 3>의 왼쪽 그림과 같이 진행해 가는 것이지만, 공간의 원점에 정지해 있는 농경 정주자에게 시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림 3>의 오른쪽과 같이 원형 순환하는 것으로 인식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것은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표시한 것인데, 어떤 농부가 만약 평생을 한 지역에 정주하여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갈 경우, 그가 평생 인식하고 느끼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관념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다음 <그림 4>와 같은 나이트 모양의 원형순환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림 4> 정주민에게 매년의 시간이 원형 순환하는 이미지

(가운데 'e'는 정주하는 동아시아 농경인을 나타낸다. e는 한 곳에 정주해 있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사계절의 시간적 변화를 연속적이고 질서 있게 반복 경험함.)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주자의 시간관념은 <그림 4>와 같이 과거가 연속적으로 축적된 이미지라는 것이다. 즉, <그림 4>는 정주자가 안정된 중심에 위치하여 1년이라는 주기로 연속되는 시간 속에 살아 가고 있는 개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동아시아인들이 순환론을 선택한 이유는 정주 농경민으로서 ‘자연의 절대적인 주기성’에 동조해 생산력을 높여야만 하기 때문이며, 고대 농업사회에서 농업생산력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2) 동아시아 순환론의 특징

고대 중국인들이 습득한 경험적 농사 지식·정보가 차곡차곡 저장된 상황을 가상적 개념도로 표현한다면, 앞서 소개한 <그림 4>와 유사한 모양이 될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매년의 농경 생활 속에서 각 계절과 월마다 습득한 농사 관련 지식을 마치 오늘날의 CD(Compact Disc)나 반도체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듯이 어디엔가에 기록 저장하여 후대에서 활용하도록 했을 것이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조상들의 기억과 구술을 통해서 후대로 전승된다. 고대 동아시아인들은 이런 형태로 수천 년간의 지식을 축적하고, 조상이 전수해 준 지식과 정보에 의지해 이를 활용하며 살아왔다. 그들에게는 조상과 성인의 영향이 이처럼 결정적이기 때문에 멀리 초월적 절대자를 생각할 것 없이 조상숭배와 경험주의 철학을 발전시켜, 태초의 절대자 창조주를 호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평유란(馮友蘭, 1894~1990)은 유구한 중국 철학사를 前漢 동중서(董仲舒, BC 179~ 104) 이전까지를 ‘子學時代’, 동중서부터 근대 강유위(康有爲, 1858~ 1927)까지를 ‘經學時代’로 구분하고, 중국의 철저한 고전·성인 숭배 사상을 지적한 바 있다.

경학시대 철학자들은 새로운 견해가 있든 없든 모두 고대 즉 자학시대 철학자들의 이름에 의거해야 했는데, 대부분 경학의 이름에 의거하여 각자의 소견을 발표했고, 그 소견 역시 주로 고대 즉 자학시대 철학의 용어로 표출했다.⁴⁸⁾

이렇게 후대가 선대의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知新보다 溫故가 앞서야 하는 온고지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주 농경 사회의 끝없이 연속적인 지식·정보의 축적 구조로 인해 과거와 단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한다면 ‘知新’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溫故’를 통해 얻는 지식·정보의 가치와 효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매년 똑같은 농사짓기를 되풀이하는 것인데 그 경험지식을 대량 축적한다고 해서 정보로서 큰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만 이 같은 비판은 근·현대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19C까지 농업을 주업으로 해온 동아시아는 ‘농업 생산성 개선’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두고 끝없는 개선 노력을 해왔다.⁴⁹⁾ 예를 들어 BC 4000년경 황하 지역에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북부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이때부터 주기적인 기후변화⁵⁰⁾에 대응해야 하고, 농경지 확대를 위한 산지 개간, 신품종 개발, 석기·청동기·철기 시대에 따른 농기구 개발 등 계속 새로운 농사기술을 개발,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⁵¹⁾ 따라서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서구처럼 과거를 폐기하지 않고 과거·조상·경험을 중시한 것은 그로부터 의미있는 지식·정보를 얻어 현실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구 순환론과 확실한 차이가 있는 동아시아 순환론의 핵심 강점은 무엇인가? 이제 서론의 연구물음 ②, “기원후 천 수백 년간 동아시아

48) 풍우란, 『중국철학사 하』, 박성규 역, 까치글방, 1999, 4쪽.

49) 戰國 및 秦漢代의 『관자』, 『여씨춘추』, 『회남자』, 『예기』 『월령편』 등에는 고대 군주가 국가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며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다.

50) 유소민, 『기후의 반역』, 박기수 외 번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년, 60~61쪽 참조 : 상고대 온난하던 중국의 평균 기후는 BC 3000년경부터 AD 1700년경까지 온난·한랭기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조금씩 한랭해지고, 1700년경 이후부터 다시 온난화 추세에 있다.

5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소민, 앞의 책과, 류제현, 『중국 역사 지리』, 문학과학지성사, 1999. 참조.

의 기술 문명은 서구보다 앞섰는데, 이 시기의 기반 사상이던 순환론은 어떤 핵심 가치와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에 답할 수 있다.

서구의 순환론은 태초 절대자의 힘, 그것이 정신적이든 종교적이든 상관없이, 그 힘으로 신화시대에는 ‘원형’을 ‘반복’하고, 중세에 순환론을 넘어 직선적 시간관으로 변하기 시작해 근대 계몽시대에 직선적 시간관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반면 ‘자연’을 원형으로 하는 동아시아 순환론은 인식 주체인 농경 정주민이 순환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지식을 체계적으로 장기 축적하기 쉬웠고, 후대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BD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다. 이것을 활용하여 동아시아는 기원후 천 수백 년간 서구보다 앞선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연구물음 ②에 대한 답변이며, 동아시아 순환론이 과거 지향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서구와 다른 강점을 가진 ‘동아시아 고유의 순환론’이라 주장하는 이유이다.

V. 결론

오늘날 인공지능(AI)이 산업계에 혁신을 일으키고 인문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충격을 주며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AI가 2020년대에 가능해진 이유는,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PC의 보급과 IT 기술 발전에 따른 인터넷 검색, 정보의 디지털 저장으로 방대한 빅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고찰한 결과를 참조하면 기원 전후 중국 漢代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漢字 통일의 문자혁명과 종이 발명으로 개선된 기록 환경에서, 그동안 구전되거나 고대문자나 상징기호로 전승되던 경험지식이 이 시기에 대거 문자화되고 成書되면서, 과거에 비해 대량의 지식이 검색하기 쉬운 상태가 된 것이다. 물론 그 질적 수준은 오늘날의 DB와 다르지만, 漢代 당시의 인지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이런 상황은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IT)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에 비유할 수 있으며, 고대 동아시아는 이를 기반으로 기원후 유럽보다 앞선 번영과 발전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순환론을 단순하게 과거지향의 소극적 사고로 평가하는 것은 서구 중심적 사유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순환론의 부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 되어 낙인찍히는 바람에, 순환론이 갖는 순기능과 그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엘리아데가 고대 신화에 애정을 가지고 고대의 환경과 상황을 넓게 바라보고 깊게 연구하여 고대 신화에도 의미 있는 보편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글로벌 문화 전쟁 시대에 동아시아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복원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이런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본론에서 논지 전개에 이용한 엘리아데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고대인들은 원형을 반복하며 순환론적 삶을 살았고, 서구에서 그 ‘원형’은 서양 기독교 문명의 뿌리인 태초의 절대자라는 것이고, 둘째, 신화시대에 히브리 민족은 강력한 인격신인 ‘원형’에 의해 순환론적 삶을 살면서 과거를 폐기하며, 조금씩 직선적 시간관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이 두 내용을 참고하여 동아시아 순환론이 서구와 다른 차이점을 고찰한 결과 ① 동아시아의 ‘원형’은 ‘자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서구의 인격신과 같은 강력한 힘은 없으나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장점이 있고, ② 동아시아인들은 ‘자연’의 규칙성에 동조하고 의지해 순환론적 삶을 살면서 과거를 폐기하지 않고 ‘축적’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 ‘과거 축적’이란 수천 년간의 규칙적인 정주농경 생활로부터 비롯된 경험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뜻하며, 이것은 자연의 주기에 동조되어 나온 데이터이므로 대량 축적이 용이하다는 것을 논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두 가지 연구물음에 답하면, 첫째, 동아시아에는 강력한 창조신의 추동력이 없었고, 자연에 동조된 순환론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갈 힘이 약해져 근대까지 순환론에 머물렀다. 둘째, 그러나 동아시아가 기원후 천 수백 년간 서구보다 기술 문명적으로 앞선 이유

는 과거 시간을 폐기하지 않고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지와 암묵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발전과 퇴행을 반복하는 과거지향적 사유로 평가받아 온 동아시아 순환론이, 사실은 고대 당시에 과거 지식·정보를 축적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원 후 동아시아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해외 선행연구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엘리아데의 ‘원형과 반복’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순환론을 본 고와 같은 주제로 해석한 연구 결과는 소정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자료를 폭넓게 확인하여 주제를 확장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류제현, 『중국 역사 지리』, 문학과지성사, 1999.
- 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최인철 역, 김영사, 2004.
- 孟景春·周仲瑛, 『中醫學 概論』, 김종석 외 역, 유성출판사, 1998.
- 미르치아 엘리아데, 『영원회귀의 신화』, 심재중 역, 이학사, 2003.
- 白 奚, 『직하학 연구』, 이임찬 역, 소나무, 2013.
- 蘇 興, 『역주 춘추번로의증』, 허호구 외 역, 소명출판, 2016.
- 양계초 외, 『음양오행설의 연구』, 김홍경 편역, 신지서원, 1993.
- 위엔커(袁珂), 『중국의 고대신화』, 정석원 역, 문예출판사, 2012.
- 유교사전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 박영사, 2004.
- 유소민, 『기후의 반역』, 박기수 외 번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 유 안 편저, 『淮南子』(상), 이준영 역, 자유문고, 2015.
- 이언 모리스,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최파일 역, 글항아리, 2013.
- 이택후, 『중국고대사상사론』, 정병석 역, 한길사, 2005.
- 장웅철 역해 『중도의 길 성인의 길』, 동남풍, 익산, 2009.
- 정병석(역주), 『주역』하권, 을유문화사, 2011.
- 조셉 니덤, 『중국의 과학과 문명 I』, 이석호 외 역, 을유문화사, 1985.
- 주검지,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전홍석 역, 청계출판사, 2003.
- 주백근, 『역학철학사』 I권, 김학권 외 역, 소명출판, 2012.
- 채사장,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한빛비즈, 2014.
- 토머스 S. 쿤, 『과학혁명의 구조』, 김명자·홍성욱 역, 까치, 1999.
- 평유란, 『간명한 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2007.
- 평유란, 『중국철학사』(하), 박성규 역, 까치글방, 1999.
- Mircea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Trans. Willard R. Trask.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71.

2. 논문

- 김종석, 「고대 중국인의 聖顯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 2013.
- 박동인, 「董仲舒 儒術獨尊의 정치철학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謝松齡, 「음양오행학설사」, 김홍경(편역), 『陰陽五行說의 연구』, 신지서원, 1993.
- 徐復觀, 「陰陽五行說과 관련 문헌연구」, 김홍경(편역), 『陰陽五行說의 연구』, 신지서원, 1993.
- 胥志强, 「論神話現象學的時間分析」, 『文藝研究』 2022年第12期, 中國藝術研究院
- 소광섭, 「五行的 數理物理學的 모형」, 『과학과 철학』, 통나무, 1994.
- 임형권, 「성스러운 역사와 구속사 : 엘리야데의 유대-기독교 서사 해석」, 『문학과 종교』 제23집,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8.
- 陳群志, 「重新衡定線性時間觀与循环時間觀之爭」, 『社會科學』 2018年第7期, 上海社會科學院.
- 허재수, 「음양오행론의 시공간 복합성 고찰 및 도식화」,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Abstract

Reinterpreting East Asian Cyclicism - Based on Eliade's 'Archetypes and Repetition' / Heo Jae-Soo (Dept. of East Asian Cultural Studies, Yeungnam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ancient East Asian circular thinking was not a backward looking way of thinking, but a process of building a unique knowledge database in East Asia. Using Eliade's theories and arguments of 'Archetypes and Repetition' in *The Myth of Eternal Return*,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why ancient East Asian cyclicism did not develop into a linear view of time in the modern times.

Since East Asians did not need an absolute creation God with strong power like the ancient Hebrew people. They had weak power to push them into the future, and because their main job was sedentary farming, it was difficult to escape the theory of circulation due to strong synchronism with the natural cycle. However, when ancient Westerners discarded 'past time' in the process of experiencing 'Archetypes', East Asians accumulated 'past' in the process of circulation. They built a knowledge and information database that could be used in future generations, and used this empirical knowledge of the past to achieve prosperity that surpasses the West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A.D.

If so, the reason for cherish the past and chose circulation in East Asia can be seen as an inevitable process to recycle past knowledge and information, so evaluating it as a past oriented passive thinking is considered Western centered thinking.

Key words: Circulation theory, archetypes and repetition, Mircea Eliade, East Asia, Data Base.